

## EBS 수능 연계교재의 영한 번역 양상 고찰: 문장 분할을 중심으로\*

김 지 영  
(이화여대)

### 1. 서론

특정 연령층의 대다수가 배경지식이나 관심사와 상관없이 접하게 되는 번역문이 있을까? EBS 수능 연계 영어교재의 부록인 「정답과 해설」에 실리는 번역문이 그 중 하나일 것이다. 2011년 수능-EBS 연계 정책이 시행된 이후 EBS 연계교재는 대입을 위한 필수 학습 자료가 되었다. 이에 학습자들이 「정답과 해설」 내의 번역문을 더 많이 접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일 것으로 사료된다. 박지은과 임현우(2017: 53)는 고3 학생의 92% 이상이 연계교재를 사용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학습자들이 「정답과 해설」에 수록된 국문 번역과 답안을 암기하기까지 한다(중앙일보 14/11/22: 5)는 내용이 보도되기도 하였다. 또

한 지난해 8월 교육부가 기존 연계정책의 기초를 유지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교육부 2019)<sup>1)</sup> EBS 수능 연계교재의 영향력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어 교재의 번역문<sup>2)</sup>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가운데, EBS 수능 연계교재는 대입 준비를 위한 영어 교육 및 학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연구 가치가 있다. 동시에 영어 문장의 국문 해석이 일상화된 영어 학습 관행이 매우 한국적인 맥락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코퍼스 구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비교코퍼스 기반의 번역 연구가 충분히 수행되지 못한 상황에서(김혜영 2015: 54), EBS 교재의 영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은 정량 연구에 용이한 대규모 코퍼스 데이터를 제공한다. 게다가 정치·철학·경제학 등 19가지 소재를 포함하는(교육과학기술부 2011) 균형코퍼스인 동시에 내용 갱신이 연 2회(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니터링 퍼스의 성격을 띠고 있어 더욱 유용한 연구 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외국어 학습 보조 도구로서의 특수 목적을 고려했을 때, EBS 연계교재 번역문에는 일반 번역과는 다소 구별되는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는 원문의 긴 문장을 번역문에서 짧고 쉬운 문장으로 분할하는 양상이 EBS 교재의 영한 번역문에서는 지양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학습자 입장에서 원문과 번역문의 대조 및 발췌독이 용이해야 하며, 교사 입장에서도 영어 지문을 한국어로 해석하는 방식의 수업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

- 1) 수능-EBS 직접 연계율이 기존의 70%에서 50%로 조정되었으나, EBS 연계교재 지문과 주제·소재가 유사한 지문을 다른 책에서 발췌해 출제하는 간접 연계를 과목 특성에 따라 확대하는 방침이 함께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EBS 연계교재의 영향력은 줄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2) 외국어 교재의 해석문을 ‘번역’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번역의 정의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기에 하나의 문장으로 단정하기는 힘들다, 일반적 정의는 ‘어떤 언어로 된 글을 다른 언어의 글로 옮기는 것’(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이다. 김소정(2016: 11-15)은 외국어 교육 측면에서의 번역과, 전문 영역(번역 교육)에서의 번역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고찰한 결과, 공통적으로 한 언어로 쓰인 텍스트를 다른 언어의 언어로 옮기는 행위를 번역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연구자는 외국어 교재의 해석문을 번역의 일종으로 간주하는 것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본 논문은 2019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한국연구재단-2019-글로벌박사양성사업).

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해당 교재가 번역 훈련을 위한 텍스트가 아니라 수험자의 학습 보조 도구이기 때문에, 가독성을 높이는 전략으로서 오히려 문장 분할이 더 많이 나타날 것이라는 반론도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는 EBS 수능 연계교재 영한 번역문의 고유한 번역 양상을 문장 분할에 초점을 맞추어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EBS 수능 연계교재 영어 지문과 한국어 번역문의 병렬코퍼스를 구축하고, 그에 상응하는 일반 출판 역서와 영어 원저의 병렬코퍼스를 비교코퍼스로 구축하여 정량 분석을 수행하였다. 문장 분할 양상을 개괄적으로 분석한 후에는 문장부호와 관계절이 포함된 구문을 중심으로 문장 분할을 비롯한 구체적인 번역 양상을 들여다보았다. 문장부호와 관계절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그 기능과 사용 양상에 있어서 양 언어 간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요소(김도훈 2008: 9; 최진실 & 박기성 2009: 131)이므로 문장 분할과 같은 적극적인 번역 전략이 빈번하게 사용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 2. 이론적 배경

### 2.1 EBS 수능 연계교재 연구

EBS 수능 연계교재 관련 연구는 EBS-수능 연계 정책의 효과 및 문제 난이도 측면의 두 축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다. 전자와 관련하여, 해당 정책의 취지인 사교육비 경감과 학습 효율성 증대 여부를 검증하는 데 연구의 관심이 집중되었으며 그에 대해서는 엇갈린 평가가 이루어진 바 있다(장원섭 외 3인 2013: 50). 연계교재의 난이도에 대한 연구는 코퍼스 분석 기반의 정량 연구가 주를 이루며 공통적으로 EBS 연계교재의 난이도가 교과서에 비해 크게 높음을 지적하였다(김재은 & 최인철 2015; 조민수 & 박은수 2016). 또한 박지은과 임현우(2017)는 설문조사를 통해 고등학생과 교사들이 공통적으로 연계교재의 난이도가 지나치게 높다고 응답하였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를 비추어 볼 때, 학습자들이 연계교재를 통한 자율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고 그에 따라 「정답과 해설」에의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답

과 해설」에 실리는 영한 번역문을 중점적으로 다룬 개별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박지은과 임현우(2017: 46)의 연구에서 ‘해설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설문 항목에 응답자들이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점이 간략히 언급되었을 뿐이다. 이에 연구자는 EBS 수능 연계교재의 영한 번역문을 번역학 측면에서 조명하여, 정량 분석을 통해 고유한 번역 양상을 규명하고 그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 2.2 외국어교육과 번역

본 연구는 EBS 연계교재 영한 번역문의 번역 양상을 들여다봄으로써 해당 양상이 외국어 교재로서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고찰하고, 나아가 외국어교육에 건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찾기 위한 밑바탕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어 교육·학습에 번역 활용이 효과적이라는 전제가 본 연구의 존립 근거가 될 것이다.

문화 간 의사소통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최근 20년간 외국어교육에서의 번역의 역할 및 필요성이 재조명되어 왔다(Pym & Ayvazyan 2017: 11). 쿡(Cook 2010)과 라비오사(Laviosa 2014)는 외국어교육에서의 번역의 역할과 비중의 변천사를 정리하고 관련 이론 및 실증 연구를 개괄하며 논의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구체적인 방법론에 초점을 맞춘 카레레스와 노리에가-산체스(Carreres & Noriega-Sanchez 2011)와, 설문조사를 통해 교사들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한 켈리와 브루엔(Kelly & Bruen 2014)의 연구 또한 주목할 만하다. 국내 연구자들 역시 한국의 외국어교육 맥락에서 번역 접목의 필요성을 다각도로 고찰하였다(류일영 2001; 박수경 2003; 박노철 2004; 박재욱 2009; Kim 2012 등).

그런데 위의 연구들은 모두 번역 ‘작문’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해석’하는 활동으로서의 번역문 활용을 다룬 국내외 연구는 많지 않다. 쿡(2010: 143)은 오역이나 직역된 번역문을 활용하는 방법론을 간단히 제시하였고, 이화자(2017)는 한국어 번역문의 반복적 읽기가 학습자들의 영어 원문 이해도 및 어휘 습득에 효과적이었음을 밝혔다. 한편 한국의 외국어교육 과정은 의사소통 중심 접근법을 채택한 1990년대 6차 교육과정부터, 모국어로 가는 ‘해석’ 형태의 학습

번역을 배제하지 않고 적절한 사용을 권장해 왔다(김소정 2017: 74). 이에 한국의 외국어교육 맥락에서 번역문의 개입이 빠질 수 없는 요소임을 인정하고 그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함에 있어, 노출도가 높은 EBS 교재 번역문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 2.3 코퍼스 분석을 통한 번역 양상 연구

### 2.3.1 문장 분할

번역문의 문장 분할은 번역보편소 중 ‘단순화’ 양상의 하위 범주로 볼 수 있다. 단순화는 베이커(Baker 1996)가 명시화한 개념으로 번역문이 비번역문보다 단순한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문장 길이가 짧아지는 것이 단순화의 대표적 양상 중 하나로 분석되어 왔다는(Baker 1996; Laviosa-Braithwaite 1996, 1997) 점에서, 문장 분할 역시 문장 길이를 줄이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서 단순화의 양상으로 볼 수 있다. 말카예(Malmkjær 1997)는 원문의 삽표나 세미콜론이 번역문에서 마침표로 전환되는 문장 분할 양상을 관찰하여 이를 단순화의 양상 중 하나로 명시하기도 하였다.

번역문의 단순화에 대한 국내 연구는 주로 문학 텍스트를 다루는 연구(김혜영 2009; 김혜영 외 6인 2010; 이창수 2013, 2014)를 시작으로, 비문학 텍스트로 차츰 범위가 확장되었다(김혜림 2014; 고광운 & 이영희 2016; 최희경 2016). 그 과정에서 텍스트 장르에 따라 단순화 양상이 달리 나타나며 그에 따라 각기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이 강조되었다(김혜영 2009; 김혜영 외 6인 2010; 고광운 & 이영희 2016). 또한 그 중에서 문장 길이를 중점적으로 분석한 연구로는, 한영 문학 번역문을 분석한 이창수(2013, 2014)와 한국어 기사의 번역문과 비번역문을 비교한 최희경(2016) 등을 들 수 있다.

기존 연구들이 지적했듯이 단순화 양상 분석에 있어서 텍스트 장르 및 분석 항목을 더욱 세부적으로 나누어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관심이 닿지 않았던 외국어 교재 번역문을 새로운 장르로 인식하고 단순화 양상을 분석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앞선 연구들이 평균 문장 길이를 측정하는 단편적인 분석에 그쳤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문장 분할을 분석 항목으로 특정함으로써 보다 정교하게 번역보편소를 고찰

한다는 데 의의를 가진다.

### 2.3.2 문장부호 번역

콜론, 세미콜론, 그리고 대시로 대표되는 영어 문장부호는 메시지 전달 구조를 보여주는 텍스트적(textuality) 요소일 뿐 아니라 저자의 의도를 드러내는 메타언어적 장치이다(Lee 2010: 177). 그런데 영어 문장부호는 한국어에 비해 그 종류가 다양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쓰이며 기능 및 용법이 한국어와 다른 경우가 있어 번역의 어려움이 발생한다(김도훈 2008: 9).

영어-한국어 간 문장부호 번역을 다룬 연구들은 번역 시 발생하는 고충을 범주화하고 그에 따른 번역 전략을 기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고 그 중 하나로 문장 분할이 제시되어 왔다. 이영옥(Lee 2010: 190)은 대시의 기능을 세부 항목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번역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그 중 하나로 문장 분할을 명시하였다. 영어 문장부호 각각의 기능을 범주화하고, 그 번역 양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김도훈(2007, 2008, 2010, 2011, 2013)의 연구 또한 주목할 만하다. 해당 연구자는 다양한 번역 용례와 전략을 제시하며 실질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였고, 문장 분할 역시 문장부호 번역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2007: 75).

그러나 국내의 문장부호 번역 연구는 주로 문학 번역에 치중되어 있으며 특정 연구자에 한정되었다는 점에서 다양한 텍스트 장르 내의 문장부호 번역을 새로운 관점에서 조명하는 후속 연구를 요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외국어 교재 번역문의 문장부호 번역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2.3.3 관계절 번역

영어 관계절의 한국어 번역을 고찰한 선행 연구들 또한 언어 간 통사 구조 및 어순 차이에서 비롯되는 어려움을 기술하였고, 그 중 문장 분할을 주요 번역 양상 및 전략으로 명시하였다. 이영옥(2004: 161)과 진실로(2007: 205)는 원문의 정보 흐름과 의도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재현되도록 하는 방안으로 문장 분할을 제시하였다. 최진실과 박기성(2009: 146)은 소설 세 편의 번역본을 분석한 결과 등위나 병렬 구조 등의 속성을 가지는 비제한적 용법의 관계절 번역에서

문장 분할이 많이 이루어졌음을 발견하였다. 원은하(2012) 또한 관계절 번역의 모호함 및 중의성을 해소하는 전략 중 하나로 문장 분할을 제시하였다.

한편 박옥수(2014)는 관계절이 포함된 텍스트의 번역 양상을 분석하는데 있어 영어 학습용 시사 교재와 일반 기사 번역문을 비교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도 시사점을 제공한다.<sup>3)</sup> 해당 연구는 학습용 교재에 수록된 번역문의 경우 학습자의 내용 이해를 위해 가독성보다는 충실성에 더 중점을 둔 번역 양상이 나타났음을 밝혔다(박옥수: 271). 이는 텍스트 기능 및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번역 양상을 규명하려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연구 대상으로 한 기사문의 양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그 결과를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자는 EBS 연계교재의 번역 양상을 분석함에 있어 코퍼스 툴을 활용한 대규모 정량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 2.4 분석 틀: 투리의 번역규범

본 연구는 투리(Toury 1995)의 번역규범 모델<sup>4)</sup>을 도입하여 EBS 수능 연계교재 번역문의 번역 양상을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그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상원(2004: 36)에 따르면, 번역규범은 특정 사회·문화적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번역 행동의 일관성(regularities)이 작동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연구자는 한국의 대학 입시 시스템과 영어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였을 때, EBS 교재 번역문의 고유한 번역 양상을 고찰하는 데 있어 번역규범 개념이 유용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선행 연구 역시 주로 특정 장르 번역의 특성을 번역규범 이론에 의거하여 분석하였다. 이상원(2004)은 한국 출판 번역 독자들의 번역 평가 규범을,

- 3) 시사 교재의 독자가 학습 목적을 가지고 원문과 비교하면서 번역문을 읽게 될 것이라는 가정(박옥수: 251) 하에 분석이 수행되었으며, 이는 본고의 서론에 제시한 본 연구의 가설과도 일치한다.
- 4) 투리는 번역 규범을 초기규범(initial norms), 예비규범(preliminary norms), 실행규범(operational norms)으로 분류하였다. 출발어 규범과 도착어 규범 중 어느 쪽을 지향하는지 선택하는 것이 초기규범, 번역 정책이나 중역 허용 여부 등 번역할 텍스트를 선정하는 단계에 적용되는 것이 예비규범, 내용·형식의 생략 및 추가 등 번역 단계에서 작동하는 것이 실행규범이다.

신지선(2005)은 아동문학 영한 번역의 규범을 고찰하였다. 또한 송연석(2012)은 뉴스 편역(trans-editing)에 작동하는 번역규범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임종우 외(2016)는 외화 제목의 번역규범을 체계적으로 분류 및 기술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의 분석 방법을 참고하여, 본고는 EBS 수능 연계교재의 번역 양상을 아래와 같이 분석하고자 하였다.

〈표 1〉 Toury의 번역규범 및 EBS 교재 번역문의 분석

번역규범의 종류*		EBS 교재 번역문 분석
초기규범 (Initial Norms)	SL에 충실한 번역 (Adequate Translation)	<b>문장 분할 비교</b> : SL 규범에 충실한 ‘적절한(adequate)’ 번역인가 vs. TL 규범에 충실한 ‘수용가능한(acceptable)’ 번역인가
	TL에 충실한 번역 (Acceptable Translation)	
예비규범 (Preliminary Norms)	번역정책 규범 (Translation Policy)	원문 텍스트가 사전에 정해지므로 작동하지 않음
	중역관련 규범 (Directness of Translation)	
실행규범 (Operational Norms)	텍스트구성 규범 (Matrical Norms)	생략 또는 첨가 없이 텍스트 전체를 그대로 번역해야 하므로 작동하지 않음
	텍스트언어 규범 (Textual-Linguistic Norms)	<b>문장부호·관계절 구문 번역 비교</b> : ST 구조를 최대한 유지한 번역인가 vs. 어순 및 통사 구조의 변화 등으로 TL 규범에 최대한 근접한 번역인가

\* 번역규범의 하위 목록은 모두 신지선(2005)의 술어 번역을 따랐음.

위 <표 1>의 예비규범 중 번역정책 규범과 중역관련 규범은 본 연구에서는 논외로 한다. EBS 교재의 영어 지문은 출제 주체가 번역을 고려하지 않고 교육 목적에 맞추어 원문을 선정하기 때문에 해당 규범이 작동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실행규범 중 텍스트구성 규범 역시 원문과의 비교를 염두에 둔 외국어 교재 번역문의 특성 상 작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외국어 교재 번역문의 고유한 특성이 변수가 되는 규범은 초기규범과 텍스트언어 규범이다. 초기규범은 번역가가 기본적인 번역 방향을 설정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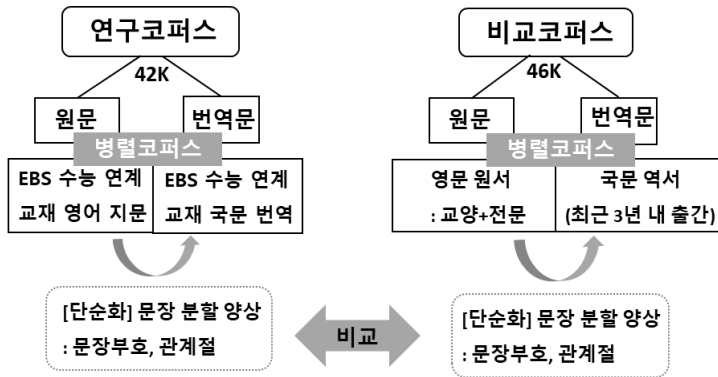
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신지선 2005: 39), 텍스트언어 규범은 번역문을 구성하는 언어 요소를 선택할 때 작동하는 규범이다. 200어절 미만의 단위로 각 원문이 구성되는 EBS 교재의 특성 상, 번역문의 문체 등 언어적 요소를 고려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출발어와 도착어 간 언어적 차이가 극명히 드러나는 문장부호와 관계절 구문의 번역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초기규범과 실행규범이 일관되게 작동하는지 관찰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3. 연구 방법

#### 3.1 코퍼스 구축

연구자는 EBS 수능 연계교재의 영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으로 구성된 병렬코퍼스와, 국내 출간된 역사 및 해당 원저의 병렬코퍼스를 동일한 규모로 구축하였다. 아래의 <그림 1>은 이를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1> 본 연구의 구성



##### 3.1.1 연구코퍼스

본고는 EBS 수능 연계교재 3종<sup>5)</sup> 중 <2020년도 수능특강 영어독해연습>을

5) <수능특강 영어>, <수능특강 영어독해연습>, <수능완성 영어> 3종이 수능 연계교재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해당 교재는 첫째, 본고의 코퍼스 구축 시기 기준 가장 최근(2019년 1월 20일)에 출간된 연계교재이며, 둘째, 다른 두 종의 교재와 달리 난이도가 높은 특정 유형의 문항들을 주로 다루고 있어 학습자들이 번역문을 상대적으로 더 참고할 것이라는 점에서 코퍼스 구축에 적절한 데이터라고 판단하였다.

EBS 교재는 모두 객관식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과 같은 형식의 국문으로 문제가 제시된다. 오지선다형 보기 부분은 문항 유형에 따라 국문 또는 영문으로 제시된다. 따라서 연구자는 원문의 문제와 보기 부분은 제외하고 영어 지문만 따로 추출하여 약 42,000어절 규모의 연구코퍼스를 구축하였다.

또한 원문 내에 빈칸이 있는 등 완결된 형태가 아닌 문장의 경우 추가 편집을 거쳤으며, 이는 「정답과 해설」의 한국어 번역문과 대응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시 말해, 정답과 오답에 해당되는 두 가지 표현이 한 문장 안에 함께 제시되어 있는 경우(어법, 어휘 유형 등)는 정답에 해당되는 어휘만을 넣어 번역문과 일치하도록 하였고, 문장 및 문단의 순서를 묻는 문항 또한 번역문에 제시된 대로 원문을 정답 순으로 재배열하였다. 흐름에 맞지 않는 문장을 고르는 문제에서는, 해당 문장도 번역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원문 역시 삭제하지 않았다. 한편 문맥에 맞지 않게 쓰인 어휘를 고르는 문제는 기존 원문을 유지하였다. 해당 어휘가 어떻게 고쳐져야 하는지 번역문에서 제시하지 않으며, 어휘 차원의 문제이므로 문장 분할과 무관하여 분석 결과와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 3.1.2 비교코퍼스

본고는 비교코퍼스 선정에 있어 대중예의 노출도가 높고 EBS 연계교재의 소재 구성과 흡사해야 한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또한 비교코퍼스 구축 절차와 관련하여, 약 100만 어절의 비교코퍼스를 구축한 김혜영(2015)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해당 연구자는 1990년대 이후 국내에서 출판된 역사의 소재 별 실제 비율을 고려하여 문학, 일반교양, 그리고 전문 텍스트가 약 30%씩, 아

로 지정되어 있다. (<http://ebsi.co.kr>)

등 서적이 약 10%로 구성된 균형코퍼스를 구축한 바 있다.

먼저 EBS 연계교재의 소재 구성과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2011)는 아래 <그림 2>의 총 19가지 소재를 영어과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양수영과 이동주(2019)는 해당 소재가 EBS 연계교재에 실제로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정량 분석한 결과, 18번의 일반교양(42.6%), 19번의 학문적 소양(22.1%), 그리고 1번의 개인생활(12%) 순의 비중 현황을 확인하였다(2019: 717).

<그림 2> 영어과 교육과정 권장 소재(교육과정기술부, 2011)

**【별표】**

**소 재**

일상생활과 친숙한 일반적인 화제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소재를 선택하되,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 탐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및 창의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한다.

1. 개인생활에 관한 내용
2. 가정생활과 의식주에 관한 내용
3. 학교생활과 교우 관계에 관한 내용
4. 사회생활과 대인 관계에 관한 내용
5. 취미, 오락, 여행, 건강, 운동 등 여가 선행에 관한 내용
6. 동·식물 또는 계절, 날씨 등 자연 현상에 관한 내용
7. 영어 문화권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에 관한 내용
8. 다양한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관한 내용
9. 우리 문화와 다른 문화의 언어적, 문화적 차이에 관한 내용
10. 우리의 문화와 생활양식을 소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11. 공중도덕, 예절, 협력, 배려, 봉사, 책임감 등에 관한 내용
12. 환경 문제, 자원과 에너지 문제, 기후 변화 등 환경 보전에 관한 내용
13. 문학, 예술 등 심미적 심성을 기르고 창의력, 상상력을 확장할 수 있는 내용
14. 인구 문제, 청소년 문제, 고령화, 다문화 사회, 정보 통신 윤리 등 변화하는 사회에 관한 내용
15. 진로 문제, 직업, 노동 등 개인 복지 증진에 관한 내용
16. 민주 시민 생활, 인권, 양성 평등, 글로벌 에티켓 등 민주 의식 및 세계 시민 의식을 고취하는 내용
17. 애국심, 평화, 안보 및 통일에 관한 내용
18. 정치, 경제, 역사, 지리, 수학, 과학, 교통, 정보 통신, 우주, 해양, 탐험 등 일반교양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19. 인문학, 사회 과학, 자연 과학, 예술 분야의 학문적 소양을 기를 수 있는 내용

그런데 위의 소재 항목은 개수가 너무 많고, 나열된 세부 내용 역시 항목 간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다. 따라서 비교코퍼스에 포함될 텍스트를 각 소재 항

목에 맞추어 정확히 분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 수능시험 영어 영역에 출제된 지문의 소재와 위의 권장 소재 목록을 교차 비교하고자 하였다. 2019년도 수능 영어영역의 독해 문항 28개 중 21개 문항 지문의 원서 출처가 확인된 바 있으며,<sup>6)</sup> 이를 바탕으로 미국 온라인 서점 아마존에서 각 원서의 소재 카테고리를 확인한 결과 인문·사회가 10 문항으로 가장 많았고, 경제·경영 6문항, 과학 2문항, 예술 2문항, 문학 1문항 순으로 구성되었다.

다음으로 연구자는 교보문고 웹사이트에 공지되어 있는 연간 베스트셀러 목록(2019년 5월 8일 기준) 중, 각 소재 카테고리의 상위 10위 내에 있는 번역서 목록을 조사하였다. 그 중 영어 외 언어가 출발어인 번역서를 제외하였고, 앞서 조사한 교육과정 권장 소재 및 수능 지문 소재와 가장 유사한 소재의 도서를 추출하였다. 그 결과 아래의 <표 2>과 같이 세 권의 역서 및 원서를 선정하였고, 그 일부를 발췌하여 약 46,000어절 규모의 병렬코퍼스를 구축하였다.

<표 2> 분석 대상 도서 선정

ST(원문)	TT(번역문)	소재*	순위	저자	역자	출간시기
21 Lessons for the 21st Century**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인문교양	10위	유발 하라리	전병근	2018.09
Unscripted	언스크립티드	경제/경영	7위	엠제이 드마코	안시열	2018.01
Lab Girl	랩걸	교양과학	1위	호프 자런	김희정	2017.02

\* 교보문고 웹사이트 분류 기준을 따랐음.

\*\* 미국판

연구코퍼스와 비교코퍼스 각각의 추출 범위 및 규모는 아래 <표 3>과 <표 4>와 같다.

6) <https://blog.naver.com/7pencils/221400629184> (원서목록 정보 출처)  
<https://likasuni.tistory.com/2426> (원서목록 정보 출처)

〈표 3〉 연구코퍼스의 추출 범위 및 어절·문장 수

연구코퍼스	제목	범위	어절(수)	문장(수)
ST	《2020년도 수능특강 영어독해연습》 - 문제지	1-12강 지문	23,674	1,116
TT	《2020년도 수능특강 영어독해연습》 - 정답과해설	1-12강 해석	18,544	1,155

〈표 4〉 비교코퍼스의 추출 범위 및 어절·문장 수

비교코퍼스	제목	범위(쪽)	어절(수)	문장(수)
ST	21 Lessons for the 21st Century	3-38	11,585	516
	Unscripted	351-381	6,000	359
	Lab Girl	139-172	8,603	378
	<b>total</b>		<b>26,188</b>	<b>1,253</b>
TT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20-72	8,720	615
	언스크립티드	441-471	5,021	384
	랩걸	93-119	6,605	515
	<b>total</b>		<b>20,346</b>	<b>1,514</b>

### 3.2 코퍼스 분석

#### 3.2.1 문장 분할 분석

연구자는 위의 연구코퍼스와 비교코퍼스의 영한 번역 과정에서 문장 분할이 이루어지는 양상을 고찰하기 위해, 원시코퍼스 형태의 병렬텍스트를 문장 별로 정렬한 후 각 문장의 분할 여부를 확인하였다. 또한 문장 분할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할 양상을 보인 각 문장의 언어 및 통사 구조 등을 분석해 유형 별로 분류하였다.

#### 3.2.2 문장부호와 관계절 번역 분석

다음으로 문장부호 및 관계사가 포함된 문장의 번역 양상을 문장 분할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EBS 연계교재 번역문의 고유한 번역 양상을 들여다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CLAWS5 프로그램과 국립국어원의 지능형

태소분석기를 사용하여 원문과 번역문 원시코퍼스의 형태소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후 AntConc 틀에 형태소 분석 코퍼스를 입력하여 문장부호와 관계사가 포함된 영어 원문 문장들을 수집하였다. 한편 영어 텍스트의 형태소 태그(tag)는 품사 기준으로 데이터를 추출하기 때문에,<sup>7)</sup> 문장 내 기능에 따라 정의되는 관계절의 경우 별도의 분류 및 취합 절차를 거쳤다. 그 다음 해당 문장들이 어떠한 양상으로 번역이 되었는지 문장 분할을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 4. 분석 결과

### 4.1 문장 분할 분석

본 연구는 EBS 수능 연계교재 번역문과 일반 번역문의 문장 분할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EBS 교재 번역문의 고유한 번역 양상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아래 <표 5>와 같이 EBS 교재 번역문에서 현저히 낮은 비율의 문장 분할 양상이 발견되었다.

〈표 5〉 연구코퍼스와 비교코퍼스의 문장 분할 비교

		어절(수)	문장(수)	문장분할(건)	문장병합(건)	기타*(건)
연구 코퍼스	ST	23,674	1,116	39	-	-
	TT	18,544	1,155	(3.5%)	-	-
비교 코퍼스	ST	26,188	1,253	284	7	20**
	TT	20,346	1,514	(22.7%)	(0.6%)	(1.6%)

\* 생략(누락) 및 첨가

\*\* 생략(누락) 19건, 첨가 1건

위 결과는 EBS 교재 번역이 문장 분할을 지양하고 최대한 원문의 문장 단위를 유지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라는 가설에 부합한다. 이는 투리의 초기규범 중, 출발어에 충실하고자 하는 번역 규범이 작동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EBS

7) 예를 들어, 영어 형태소 분석기 CLAWS5에서 'who'의 태그는 PNQ(의문대명사)인데 해당 태그로 검색하면 의문사 who와 주격 관계대명사 who가 한꺼번에 정렬된다. 따라서 의문사 who가 쓰인 문장을 별도로 제거하는 절차가 필요하였다.

수능 연계교재는 학생들이 사교육의 부담 없이 교재를 통한 자습만으로도 수능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도입된 정책의 일환이다. 그 취지에 따라 학습자 입장에서 원문과 번역문의 비교·대조 및 발췌독에 용이하도록 문장 분할이 지양된 것이라 해석된다. 이 같은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chi$ -검정을 한 결과  $p$ -값이 0.0063으로 도출됨으로써, 위 연구코퍼스와 비교코퍼스의 문장 분할 비율이 유의미하게 다르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더불어 EBS 번역문에서는 비교코퍼스와 달리, 문장 병합이나 생략 등 번역사의 재량이 필요한 번역 전략이 구사되지 않았다는 것 역시 본 결과를 뒷받침한다.

다음으로 연구자는 문장 분할이 주로 어떠한 경우에 이루어지는지 언어·통사적 측면에서 들여다보고자 하였다. 이에 연구자는 문장 분할이 이루어진 각 문장의 특성을 분석하여 아래 <표 6>과 <표 7>과 같이 분류하였다.

<표 6> 연구코퍼스의 문장 분할 분석

연구코퍼스	유형(ST)	비율	비고
문장분할	쉽표	28.2%	병렬구조, 직접인용 등
	콜론	28.2%	
	세미콜론	25.6%	
	대시	17.9%	
문장병합	-	-	
기타	-	-	

<표 7> 비교코퍼스의 문장 분할 분석

비교코퍼스	유형(ST)	비율	비고
문장분할	쉽표	61.6%	병렬구조, 관계절, 진행형, 직접인용 등 병렬구조, 관계절 등
	복문*	13.0%	
	콜론	10.9%	
	대시	7.7%	
	세미콜론	5.3%	
	의미보충·강조	1.4%	
문장병합	의문문	14.3%	
	평서문	85.7%	
기타	생략	95.0%	
	첨가	5.0%	

\* 쉽표, 콜론 등의 문장부호가 없는 문장

위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연구코퍼스와 비교코퍼스 모두 원문의 쉽표 부분에서 문장 분할이 많이 이루어졌다. 연구코퍼스에서는 접속사로 연결되는 병렬구조의 문장에서 쉽표를 기준으로 문장이 분할되거나, 쉽표 후 직접 인용이 이어지는 원문 구조에서 인용절이 새로운 문장으로 분리되는 양상 등이 관찰되었다. 비교코퍼스에서는 쉽표가 포함된 문장과 포함되지 않은 복문의 경우 모두, 두 개 이상의 절이 접속사를 통해 병렬 구조를 이루는 문장에서 다수의 분할 양상이 발견되었다. 해당 유형의 문장 분할 중 한 가지 더 주목할 만한 점은 which나 who 등의 관계사 구문으로 인한 분할 양상이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문장 분할에 있어서 그 다음으로 비중이 큰 요소는 연구코퍼스와 비교코퍼스 모두 콜론, 대시, 세미콜론 등 영어의 대표적인 문장부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문장부호와 관계절 번역에 초점을 맞추어 문장 분할 양상을 들여다보고자 하는 본고의 분석 방향을 뒷받침한다.

한편, 비교코퍼스에서 의미 보충·강조의 목적으로 문장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는 아래 예시를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1) 의미 보충의 예

ST: It starts with simple things, like sitting down with friends to spend a cozy evening in front of the TV.

TT: 그것은 아주 단순한 것, 가령 어떤 영화를 볼지 결정하는 일 같은 것으로 시작된다. 친구들과 티브이 앞에 둘러앉아 아늑한 저녁을 보내려면 우선 무엇을 볼지 골라야 한다.

(2) 의미 강조의 예

ST: You don't know the exact reasons, and even if you knew, you would not be able to organize a protest with other people, because there are no other people suffering the exact same prejudice.

TT: 당신은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심지어 안다 해도 다른 사람과 조직해서 항의를 할 수도 없다. 똑같은 선입견으로 피해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당신 혼자뿐이다.

예시 (1)은 원문에 없는 ‘영화’와 관련된 내용이 번역문에 추가되었다. 물론



바로 뒤에 “Fifty years ago you had very little choice about what you could watch, but today, with the rise of view-on-demand services, there are thousands of titles available. (50년 전만 해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만 지금은 온디맨드 서비스 덕분에 시청할 수 있는 영화가 수천 편에 이른다.)”라는 문장이 이어지면서, 친구들이 티브이 앞에 둘러앉아서 하는 것이 ‘영화를 보는’ 일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문장에 나오는 내용이 앞 문장의 번역에 미리 포함된 것은 명백히 역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내용 보충이다.

예시 (2)는 여러 절이 쉼표로 이어진 원문 문장이 번역 과정에서 네 개의 단문으로 분할되었다. 그 과정에서 “당신 혼자뿐이다.”라는 문장이 추가되며 역자에 의해 내용이 강조되었다. 따라서 위의 (1)과 (2)는 투리의 번역규범 중 독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도착어에 충실한 규범이 더 강하게 작동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문장 분할 외에도, 문장 병합 및 생략, 첨가 양상이 비교코퍼스에서만 관찰되었다는 점 역시 의미가 있다.<sup>8)</sup> 문장 병합이나 생략, 첨가 또한 앞서 제시한 의미 보충·강조의 경우처럼 번역사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원문의 변형이다. 따라서 해당 번역이 출발어 규범에 충실했는지 도착어 규범에 충실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변수가 된다. 비교코퍼스에서 나타난 문장 병합의 경우, 두 문장의 논리 구조를 드러내는 접속사 *but*이 어미 ‘-지만’으로 변환되며 한 문장으로 병합되는 양상 등이 관찰되었다.<sup>9)</sup> 역자에 의한 원문 문장 생략<sup>10)</sup>은, 해당 문장을 생략해도 내용의 이해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주관적 판단 하에 선택된 번역 전략으로 보인다.

8) 외국어 교재의 특성 상 EBS 연계교재 번역에 생략·첨가 등의 기준이 되는 ‘텍스트구성 규범’이 작동할 여지가 없으므로 해당 규범은 논외로 하겠다는 본고의 논리를 덧붙임한다.

9) ex. “Humans cannot usually detect the difference. But a biometric sensor could.”의 두 문장이 “인간은 보통 그 차이를 감지할 수 없지만 생체 측정 센서는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한 문장으로 번역되었다.

10) ex. “Nevertheless, in the long run no job will remain absolutely safe from automation. Even artists should be put on notice.”의 두 문장에서 뒷문장이 생략되며, ‘그럼에도, 결국에는 어떤 일자라도 자동화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안전한 상태로 남아 있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한 문장으로 번역되었다.

## 4.2 문장부호 번역 분석

앞서 연구코퍼스와 비교코퍼스 모두 문장부호 구문이 문장 분할을 야기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연구자는 영어의 대표적 문장부호인 콜론과 세미콜론, 대시가 포함된 각 문장의 번역 양상을 분석 및 유형화하여 아래 <표 8>과 같이 분류하였다.

<표 8> 문장부호 구문 번역의 문장 분할 분석

[unit: 건(수)]

	연구코퍼스		비교코퍼스	
	ST	TT	ST	TT
콜론	31	· 부호유지: 0 (0%) · <b>문장유지*</b> : 20 (64.5%) · 문장분할: 11 (35.5%)	60	· 부호유지: 1 (1.7%) · 문장유지: 28 (46.7%) · <b>문장분할: 31 (51.7%)</b>
세미콜론	50	· 부호유지: 0 (0%) · <b>문장유지: 41 (82%)</b> · 문장분할: 9 (18%)	36	· 부호유지: 0 (0%) · <b>문장유지: 22 (61.1%)</b> · 문장분할: 14 (38.9%)
대시	59	· 부호유지: 2 (3.4%) · <b>문장유지: 51 (86.4%)</b> · 문장분할: 6 (10.2%)	72	· 부호유지: 14 (19.4%) · 문장유지: 28 (38.9%) · <b>문장분할: 30 (41.7%)</b>

\*원문의 문장부호를 삭제하고 한 문장으로 유지한 번역

연구코퍼스인 EBS 교재 번역문의 경우 문장 분할 양상이 비교코퍼스에 비해 적게 나타났다. 세 문장부호 모두, 원문의 문장부호가 번역문에서는 삭제되고 그 대신 통사구조 변환 등을 통해 한 문장으로 유지된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에 비해 비교코퍼스에서는 세미콜론을 제외한 콜론과 대시 구문의 번역에서 문장 분할 전략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이를 문장부호 번역 시 문장 분할의 전반적 경향성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세 문장부호 번역의 각 문장 분할 건수의 합계를 내어  $\chi$ -검정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p*-값이 0.0005으로 도출됨으로써 연구코퍼스와 비교코퍼스의 문장부호 번역 시 문장 분할 비율이 유의미하게 다르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 같은 결과는, 세미콜론보다도 콜론과 대시 구문의 번역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 4.3 관계절 번역 분석

연구자는 EBS 교재 번역문과 일반 번역문의 관계절 번역 양상을 비교함에 있어, 분석 대상을 주격 관계대명사 who와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 그리고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분석 대상 관계사가 포함된 문장에서 분할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문장 부호 등 여타 요소에 의해 분할된 경우는 포함하지 않았고, 정확히 관계사를 기준으로 문장이 나누어진 건만 포함하였다. 그 결과 EBS 교재 영한 번역문에서는 관계사 번역에서 기인한 문장 분할이 한 건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비교코퍼스의 경우 19.8%의 비중으로 문장 분할 양상이 발견되었다.

〈표 9〉 관계사 구문 번역의 문장 분할 분석

[unit: 건(수)]

	연구코퍼스		비교코퍼스	
	ST	TT	ST	TT
관계사*	108	· 문장분할: 0 (0%) · <b>문장유지: 108 (100%)</b>	86	· 문장분할: 17 (19.8%) · <b>문장유지: 69 (80.2%)</b>

\*관계사 중 who, which, whose에 한정하여 조사하였음.

이 같은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chi^2$ -검정을 한 결과 p-값이 0.00001로 도출됨으로써, 관계사 구문 번역의 문장 분할 비율이 양 코퍼스 간 유의미하게 다르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한편 비교코퍼스에서도 문장 분할이 문장 유지 양상보다 훨씬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는 점이 문장부호 번역과는 구별되는 부분이다. 이는 양 언어 간 어순 및 통사 구조 등의 차이가 커 번역이 까다로운 문장부호 번역과는 달리, 관계사 구문은 문장을 나누지 않고도 나름의 전략을 활용해 한 문장으로 그대로 번역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sup>11)</sup>

11) 앞서 2.3.3에서 언급한 선행 연구들 또한 관계절 구문 번역 시 가능한 다양한 번역 전략을 소개한다. 그러나 문장 분할 양상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는 것이 본고의 연구 목적이므로, 문장 분할 외의 번역 양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후속 연구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 5. 결론 및 시사점

본고는 EBS 수능 연계교재 영한 번역문의 고유한 번역 양상을 고찰하고자 비교코퍼스 기반 정량 분석을 수행하였다. 외국어 교재 번역문의 기능 및 목적에 비추어 볼 때 EBS 교재 번역에서 ‘단순화’ 전략이 지양될 것이라는 가설을 바탕으로 문장 분할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EBS 연계교재의 전반적인 번역 및 문장부호·관계절 구문 번역에서의 문장 분할이 비교코퍼스에 비해 적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EBS 연계교재 번역문이 여타 일반 번역문에 비해 ‘단순화’를 지양할 것이라는 가설을 부분적으로 증명한 것이며, 투리의 초기규범과 텍스트언어 규범에 있어서 출발어 텍스트에 충실한 번역규범이 더욱 강하게 작동하였다는 함의 또한 도출할 수 있다. 단, 해당 번역규범 중 텍스트의 언어적 특성 위주로 분석할 수 있는 항목으로 연구 대상을 한정했다는 점에서 본고의 한계가 있다. 그러나 그동안 다루어지지 않았던 텍스트 장르의 번역 현상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그를 통해 번역규범 작동의 전반적 경향성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향후 실증 연구를 통해 번역자의 입장에서 특정 번역규범의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감수자의 입장에서 번역문 감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 평가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번역규범의 작동 결과가 수용자와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도 고찰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그동안 높은 노출도와 대중성에도 불구하고 연구적 관심을 받지 못했던 외국어 교재 번역문을 고유 번역 장르로 인식하고, 병렬코퍼스 구축을 통해 객관적 정량 분석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외국어교육의 측면에서도, 수능-EBS 연계 정책의 취지를 감안한 자율 학습의 효율적 도구로서 EBS 교재 번역문을 더욱 건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코퍼스 규모와 분석 항목을 늘려 EBS 교재의 번역 양상을 다각도로 고찰함으로써 번역의 대안 및 방향성을 제시하고, 번역문을 활용한 다양한 과업의 효과를 실증 연구를 통해 검증하여 학습자의 언어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의 상호 진작을 꾀하는 것을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고광윤, 이영희 (2016) 「한국 신문의 영어 번역에 나타난 번역 보편소의 코퍼스 기반 분석」, 『비교문화연구』 45: 109-143.
- 교육과학기술부 (2011) 『영어과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1호 별책 14)』,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부 (2019)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 발표』, 서울: 교육부.
- 김도훈 (2007) 「영한 번역시 나타나는 영어 문장부호 대시의 변이 양상 및 번역전략 고찰」, 『이중언어학』 35: 49-102.
- 김도훈 (2008) 「Colon(:)의 기능·용례 및 영한 번역시 번역전략」, 『번역학연구』 9(1): 7-27.
- 김도훈 (2010) 「대시(dash)와 줄표의 비교 및 영한 번역 전략」, 『번역학연구』 11(3): 41-64.
- 김도훈 (2011) 「영어 문장부호 Semicolon(; )의 기능 및 영한 번역 전략」, 『통역과 번역』 13(1): 17-36.
- 김도훈 (2013) 「영어 문장부호 하이픈(hyphen)과 한국어 문장부호 붙임표의 비교 및 영한 번역 전략」, 『영어영문학 21』 26(1): 183-202.
- 김소정 (2017) 『한국 중등교육과정 내 프랑스어 교육 일환으로서의 번역교육 현황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은, 최인철 (2015)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 EBS 수능 연계 교재,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코퍼스가 기반 난이도 비교 분석」, 『Multimedia-Assisted Language Learning』 18(1): 59-92.
- 김혜림 (2014) 「한중 번역의 단순화와 명시화 연구 - 신문사설 코퍼스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18(3): 237-262.
- 김혜영 (2009) 「텍스트 유형에 따른 번역 보편소의 실현양상 - 국어 비교코퍼스에 기반하여」, 『통번역학연구』 7(2): 103-122.
- 김혜영 (2015) 「비교 코퍼스에 기반한 국내 번역 연구의 현황 및 제언」, 『통번역교육연구』 13(3): 51-75.
- 김혜영, 이영훈, 고경은, 김태준, 이은정, 조혜란, 최현아 (2010) 「비교코퍼스에 기반한 불한번역 문학텍스트의 언어적 특성 연구」, 『번역학연구』 11(1):

161-190.

- 류일영 (2001) 『영어 교육에서 번역의 필요성』,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노철 (2004) 「영어 교육에 있어서 번역 교육의 필요성 연구」, 『영어교육연구』 2.
- 박수경 (2003) 『번역의 문화매개적 기능과 외국어 교육』,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옥수 (2014) 「미디어 텍스트의 관계질 번역 방식 분석」, 『동아인문학』 27: 249-278.
- 박재욱 (2009) 『영어교육에 있어 번역의 필요성과 번역전략 접목 가능성』,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은, 임현우 (2017) 「영어 학습자교사의 대학수학능력시험-EBS 연계교재의 사용 현황 및 체감 효율성」, 『Studies in English Education』 22(1): 31-57.
- 송연석 (2012) 「뉴스편역의 번역규범」, 『번역학연구』 13(5): 59-82.
- 신지선 (2005) 『아동문학 영한번역의 ‘규범’ 연구 - 가독성(可讀性)과 가화성(可話性)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수영, 이동주 (2019) 「영어 교과서, EBS 교재,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읽기 지문에 대한 코퍼스 기반 소재별 어휘 사용 양상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4): 711-729.
- 원은하 (2012) 「영한번역에서 구조적 중의성의 처리 전략」, 『번역학연구』 13(1): 87-114.
- 윤석만 (2014. 11. 22.) 「EBS 교재가 ‘수능 교과서’... 학생들 답만 달달 외워」, 『중앙일보』, 2019년 6월 검색.
- 이상원 (2004) 『한국 출판 번역 독자들의 번역 평가 규범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영옥 (2004) 「영어관계질 구문 번역의 문제」, 『번역학연구』 5(1): 145-166.
- 이창수 (2013) 「영한 번역 코퍼스를 활용한 단순화 및 균일화 보편소 연구」, 『통번역학연구』 17(3): 341-358.
- 이창수 (2014) 「번역보편소 언어지표와 번역의 자연스러움과의 상관관계 연구」, 『통역과 번역』 16(1): 129-148.
- 이화자 (2017) 「번역문이 제공된 반복적 읽기가 대학생들의 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 『Studies in English education』 22(4): 279-303.

- 임종우, 이상빈 (2016) 「외화제목의 번역규범에 관한 기술적 연구」, 『번역학연구』 17(1): 127-146.
- 장원섭, 김지영, 김수지, 남현주 (2013) 「EBS 콘텐츠 연구동향 분석」, 『미디어와 교육』 3(2): 39-63.
- 조민수, 박은수 (2016)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 EBS 수능 연계 교재, 대학 수학 능력 영어 시험의 어휘 수준 및 이독성 비교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7): 215-233.
- 진실로 (2007) 「관계절 구문의 정보구조와 정보흐름 재현 전략」, 『번역학연구』 8(2): 193-216.
- 최진실, 박기성 (2009) 「영어 관계절의 영한번역 유형 연구」, 『언어과학』 16(1): 129-148.
- 최희경 (2016) 「코퍼스 분석에 기반한 한국어 기사문 번역과 비번역의 문체 비교 연구」, 『통역과 번역』 18(1): 231-255.
- Baker, Mona (1996) 'Corpus-Based Translation Studies: The Challenges that Lie Ahead', in Harold Somers (ed.) *Terminology, LSP and Translation*,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75-186.
- Carreres, Angeles and Maria Noriega-Sanchez (2011) 'Translation in Language Teaching: Insights from Professional Translator Training', *The Language Learning Journal* 39(3): 281-297.
- Cook, Guy (2010) *Translation in Language Teaching: An Argument for Reassessment*, Cambridge: Cambridge UP.
- Kelly, Niamh and Jennifer Bruen (2014) 'Translation as a Pedagogical Tool in the Foreign Language Classroom: A Qualitative Study Attitudes and Behaviours', *Language Teaching Research* 19(2):150-168.
- Kim, Boram (2012) 'Sentence Translation and Vocabulary Retention in an EFL Reading Clas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8(2): 67-84.
- Laviosa-Braithwaite, Sara (1996) 'The English Comparable Corpus (ECC): A Resource and a Methodology for the Empirical Study of Translation', Ph.D dissertation, Manchester: University of Manchester.
- Laviosa-Braithwaite, Sara (1997) 'Investigating Simplification in an English Comparable Corpus of Newspaper Articles', in Kinga Klaudy & Janos Kohn (eds) *Transfere Necesses Est: Proceedings of the Seco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urrent Trends of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Budapest: Scholastica, 531-540.
- Laviosa, Sara (2014) *Translation and Language Education: Pedagogic Approaches Explored*, London & New York: Routledge.
- Lee, Young Ok (2010) 'How is the English Dash to be Translated into Korean? - Problems of Translation between SOV Language and SVO Language', *The Journal of Translation Studies* 11(4): 173-202.
- Malmkjær, Kirsten (1997) 'Punctuation in Hans Christian Andersen's Stories and in their Translations into English', in Fernando Poyatos (ed.) *Nonverbal Communication and Translation: New Perspectives and Challenges in Literature, Interpretation and the Media*, Amsterdam: John Benjamins, 151-162.
- Pym, Anthony and Nune Ayvazyan (2017) 'Linguistics,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in Foreign-Language Teaching Contexts', in Kirsten Malmkjær (ed.) *The Routledge Handbook of Translation Studies and Linguistics*, London: Routledge, 393-407.
- Toury, Gideon (1995) *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 Amsterdam: John Benjamins.

[Abstract]

**A Study on the Aspects of English-Korean Translation of EBS-CSAT**

**Books: Focused on the Separation of Sentences**

Kim, Ji-young  
(Ewha Womans University)

The translation aspects of EBS-CSAT books can be different from those of other translations, considering their educational purpose to help learners easily refer to Korean translations when reading English passages.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unique aspects of Korean-English translation of EBS-CSAT books, focusing on the separation of sentences, which is one of the features of Translation Universals, ‘simplification’. The study conducted a corpus-based analysis of sentence separation in one EBS book by comparing with the comparative corpus. It then analyzed and categorized the translation patterns of sentences including punctuation marks and relative clauses, which are the indicators of inter-linguistic differences between English and Korean.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EBS book’s translations showed less tendency to separate sentences. This implies that the EBS book’s translations take a source-text-oriented approach, reflecting their purpose and aspects of usage as foreign language study materials.

▶ **Keywords:** English-Korean translation, EBS-CSAT books, separation of sentences, punctuation mark, relative clause

▶ **주제어:** 영한번역, 수능연계교재, 문장 분할, 문장부호, 관계절

김지영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박사과정

kaylakim8624@gmail.com

관심분야: 학습번역, 통번역교육, 영어교육, 미디어통번역

논문투고일: 2020년 2월 10일

심사완료일: 2020년 3월 1일

게재확정일: 2020년 3월 11일